

# 서구, 역사 있는 벽진서원 향토문화유산 지정 현판 제막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가 최근 벽진서원에서 서구 향토문화유산 제2호 지정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월 서구 향토문화유산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구 향토문화유산 제2호로 지정됐지만, 코로나19로 제막식을 개최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비로소 현판식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벽진서원은 임진왜란 당시 광주에 의병도청을 설치하고 의병 모집

과 군수물자 조달 등에 힘쓴 회재 박광옥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원으로 영장과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이 곳은 市 유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회재유적박물관을 보관하고 있고, 서구에서 유일하게 사액 신실인 의열사를 갖추고 있어 중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다.

1602년 벽진동에 벽진사우로 건립돼 1604년 지금의 명칭으로 개명됐으며 1681년 김덕령 장군을 추배

하면서 숙종으로부터 의열사 사액을 받았다.

1868년 서원 훼철령에 따라 철거됐지만 1927년 풍암동에 윤리영당을 다시 설립해 보존해 오다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지난 1999년 현재의 장소로 이설 복원돼 2018년 벽진서원으로 재개원했다.

서구는 내년에 회재 박광옥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지역 향토문화유산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제1호 향토문화유산 학산사 경의당, 제2호 벽진서원에 이어 2023년에는 제3호 유산 발굴을 준비해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보존·계승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벽진서원을 관리하고 있는 벽진서원보존회(대표 박이체)는 회재 박광옥 선생의 교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기만 기자

## 남구, '스마트 버스정류장' 서비스 제공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일환으로 버스 승강장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LCD 패널을 통해 날씨 등 각종 정보 습득 및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자동심장제세동기를 갖춘 스마트 버스정류장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관내 주차장 45곳의 주차면 2,192개에 대한 공유주차 서비스에 이은 대중교통 분야 두 번째 혁신 프로젝트이다.

남구는 "빛고을 노인건강타운과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주월동 국제양궁장 앞 버스 승강장 3곳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을 완료했다"며 "이달부터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각종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승강장 내 비말 확산 차단을 위해

비말이 바닥으로 수직 침강하는 수직면분사 음압 형성 시스템과 급작스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자동심장제세동기(AED)를 갖추고 있으며,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비롯해 공공 와이파이, 온열벤치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한 방범용 CCTV 및 비상벨과 승강장 내에 설치한 LED 패널을 통해 날씨 및 버스도착 시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내 쉼터 내부를 출입하는 이용자 피악을 위해 자동문에 피플 카운터가 설치돼 있으며, 스마트 센서를 통해 LED 조명과 난방 및 공기 순환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는 똑똑한 버스 정류장이다.

이밖에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점자 촉지판 및 점자 블록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 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 제거 및 살균 기능을 갖춘 필터 시스템도 갖췄다.

/서기만 기자

## 광산구, 쌀사주기 운동 전개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쌀값 하락으로 시름하는 지역 농민들을 돕기 위해 '광주 빛찬들쌀' 사주기 운동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광산구 공직자들은 7일 전체회의를 통해 '광주쌀 사주기 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시민 대상 홍보를 비롯해 광산구 관내 기업체,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도 빛찬들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명절선물이나 답례품을 광주 빛찬들쌀로 할 것을 제안하는 등 소비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광주 빛찬들쌀 사주기 운동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발굴, 추진에도 힘을 기울인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 농민과 농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쌀 소비 촉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빛찬들쌀'은 지난 2021년 10월 분량동으로 새롭게 이전·설치한 광주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최신식 기계와 장비로 도정된다. 적정온도로 건조되기 때문에 찰기와 윤기가 좋고, 주분 당일 도정·배송되기 때문에 밥맛이 일품이다.

빛찬들쌀 대량구입 문의는 062-374-0061(광주통합RPC)로 하면 된다. /서기만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주민 주도 생활의제 실천을 통해 주민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자치 역량 향상을 위한 '2022 하반기 동구 마을 배움학교'를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구청 제공

## 동구, 2022 하반기 '마을 배움학교' 성료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연계...참여자 대상 컨설팅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주민 주도 생활의제 실천을 통해 주민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자치 역량 향상을 위한 '2022 하반기 동구 마을 배움학교'를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상의 생활의제 실천 의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

생활의제 공유 ▲생활의제 구체화를 위한 공론화 ▲생활의제 메시지 및 미디어 기획 등 과정을 통해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동구는 마을 교육이 향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연계돼 실질적인 마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참여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이 함께 모여 실천한 생활의제 경험의 축적은 개인의 성장이자 마을의 동력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자치력을 높여 성장하는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 북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광주 유일 2년 연속 선정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서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돼 국·시비 19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노후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이번 공모사업에 국제영재어린이집(삼각동), 일곡소명어린이집(일곡동), 명성어린이집(동림동), 운암어린이집(운암동) 에버빌어린이집(본촌동), 아이큰숲어린이집(신용동) 등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가 선정됐다.

북구는 올해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내년엔 국·시비 포함 총사업비 23억여 원을 투입해 내·외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조명 등 건물 리모델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절감이 필수"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북구보건소와 국공립어린이집 17개소 등 총 18개소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서기만 기자